

# 남도의 절경으로 포식했으니 밥값은 해야제



시즌 III  
〈23〉 남도-박문중

보리송어란 말이 있다. 보리 패기 시작하면 부춧머리 갯가 개송어 풀썩 썰 때라고 고놈들 몇 마리만 건어다가 동네 추렴하면 마치 종을텐데 산밭에 이제 막 약 차오르기 시작한 꽃마늘 좀 뽑고 된장 피다가 거기에 신김치 감으면 목구멍이 다 후련 할 것 아닌가. 이 봄 황사 먼지 때문에 입맛도 꽃도 다 잃었다.

나는 요즘 남도에 꽃혀있다. 더 먼지만 모르지만 몇 해 전부터 그쪽 걸음이 잦아졌으니 해남 답사 기행전, 수목비엔날레, 장흥문학길 그 외 크고 작은 답사 프로그램이 그것인데 오목조목한 해안선을 따라 난 길이 이별 뿐 아니라 재미지다.

목포, 해남, 진도, 강진, 장흥 그리고 대흥사, 미황사, 백련사, 다산초당으로 이어지는 물과 물이 맞닿은 공간 거기 넘나드는 맛 또한 오묘해서 한번 빠지면 헤어지지 못한다. 매번 코스가 반복되는데도 군소리 한마디 못하고 찢을 빼고야 마는데 그 길 가다보면 어느 한 곳 빠진 곳이 없으니 천혜의 문화관광 벨트라 할 만하다.

간만에 거기서 올해부터는 국제 수목비엔날레가 시작돼 곁을 더한다니 '예술의 꽃'도 기대 할 수 있을까? 아름다운 풍광 걸진 밥상 미주에 흠뻑이니 밥값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. 기획 행사만큼 조건이 붙기 마련 잘 먹기와 잘 그려내기이다.

미션이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답사 내내 긴장을 늦추지 못하는 이유다. 세상 그 어디에도 이런 거래(?)는 없다.

예컨대 이태리의 멋진 식당에서 파스타 시켜주고 그림 그려내라? 파리에 푸아그리를 우아하게 접대 받고 그 맛을 그림 그려 제출 해야 한다? 아무리 예술하는 나라라 한들 가당찮은가 '어찌 허깨이 본 재미를 그림보고 토 해내라 하는 것인지'

예전 어느 지면인가 한번 썼던 문구가 세삼 떠오르는 순간이다. 그날 답사는 울돌목부터라고 했다. 점심 때가 다 되어서 서울에서 오는 대절버스가 식당에 도착했다. 바로 상차림이 시작되는데 초장에 기죽어지는 것일까 상차림이 이만저만. 역시 하이라이트는 대자회집 떡 벌여지게 나오는데 답사를 할려는 건지 말려는 건지 광어, 농어, 돔, 우럭 대표급들이 총 출동하는데 거기에 우리의 송어는 끼지 못한다.

언젠가 TV 앞에 앉았는데 울돌목 송어잡이라고 해서 떠들썩 하게 방영하는 것이었다. 팔뚝만한 송어가 금방이라도 TV 밖으로 튀어 나오게 생겼다. 큰배도 집어 삼킬 것 같은 격랑의 소용돌이 바다 송어는 미사일처럼 솟구치고 그러면 물가에 대기하고 있던 낚은 여지없이 뜰채로 낚아 채 버리는 것이었다. 왜가리가 송사리 채듯.

잘 먹었으니 이동을 해야 하는데 바린 것을 먹었으니 걱정이다. 산사까지는 머지 않은 길 차량으로 40분 남짓 바린내를 거기까지 대려갈 수는 없는 일 예전 같으면 부정탄다고 부처님한테 혼줄이 낫을 터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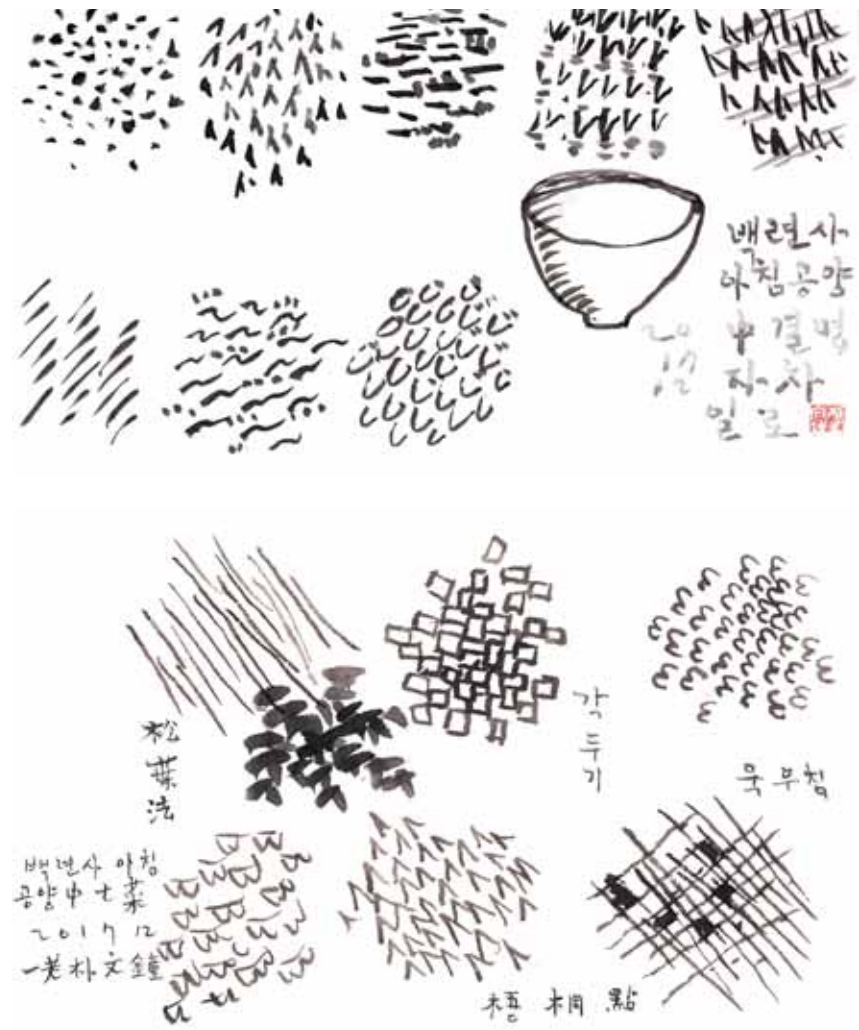
요즘 어디 그런가. 그래도 나선다. 숲을 지나고 물을 지나고 풀 한포기, 나무 한 그루, 바위돌을 돌아돌아 절집 마당에 들어섰을 때는 석양은 다산 초당 넘어 기울고 백련사 운기하는 동백숲은 겨울 채비하느라 이파리가 두텁다. 낮에 잘 먹었으니 절밥인들 구미가 있을까. 스님 설법으로 대신하고 밥값 시늬 내느라 애써 붓을 들었으나 방장스님의 범어같은 점 몇 개 선 몇가닥 끄적 대다가 그만 붓을 내던지고 말았다. <끝>



남도는 어딜 가도 천혜의 문화관광벨트라 해도 될 만큼 아름다운 풍광과 이색 정취, 속 깊은 정이 곳곳에 남아 있다.



봄철 물살이 센 해남 울돌목에서는 뜰채로 낚아질 만큼 보리송어가 많이 잡힌다.



밥 한 그릇에 몇 가지 반찬이 올라오는 남도의 소담한 밥상은 진수성찬에 비할 바 아니다.



**박문중**  
-1957년 무안 출생  
-연진회 미술원 1기 수료  
-호남대학교 미술과 졸업  
-조선대학교 대학원 순수미술학과 졸업  
-2017 신세계갤러리 등 개인전 5회  
-석사논문 '조선시대 이후의 농경도'  
-저서 '선술집 풍경'(전라도 닷컴)  
-2017 서암전통문화대상

고맙습니다  
사랑합니다

5월 가정의달 맞이  
신양파크호텔 감사 디너쇼

2018 Dinner Show

2018년 5월 3일 (목) 19:00  
신양파크호텔 1층 그랜드볼룸 **165,000**원  
(VAT포함)

입장 18:40 / 식사 19:00 / 공연 20:00 / 퇴장 21:40 (통케익증정)  
16세 미만은 입장이 불가능 합니다.

**Shin Yang Park Hotel**  
MEMBERSHIP HOTEL & FITNESS CLUB

(주) 대양인투스 신양파크호텔  
Tel. 062-228-4711~2



남궁옥분



임백천



이지현과 빗남들